

오늘 국회 본회의 정국 분수령...여야 정상화 모색

양당 원내대표 정의장 잇단 면담 與, 소속 의원들에 출석 대기령 野, 단독 개의 움직임 강력 항의

새누리당이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개의하겠다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과반 의석을 점유했던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한다면 91개 계류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가파른 대치 정국이 조성되면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앞으로의 의사일정도 출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이날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과 잇달아 만나고 수석부대표급 접촉을 재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전 정 의장을 찾아가 야당이 계속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한다면 26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계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26일 본회의의 법안 상정을 위해 '본회의 개의 요구서'를 여당 의원 전원에게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오전 정 의장을 만나 여권의 본회의 단독 개의 및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 옳지 못하다"면서 "의장이 직권상정용 의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회 협상의 카를 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野, 항의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여당 단독국회 강행추진에 항의하려고 국회 의정실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 협상과 별도로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는데 무게를 두고 적극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설득에 나서고 있고 새누리당도 본회의의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야 합의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주목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일정 복귀 문제에 대해 "날짜를 딱 잡아 얘기할 수 없으나 등원은 안 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난 의회주의자로 국회는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대책 위와 회동을 갖고 유가족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대표단은 원칙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요구를 계속하면서도 만약에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여당과 협상을 다시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당 155명 의원이 모두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의안을 처리하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다"며 "오늘 29일 같이 본회의를 열자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만 야당은 '26일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26일 오전까지 여야 협상이 잘 풀릴 경우 정기국회 첫 본회의의 개회가 29일로 사흘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도 오는 29일을 등원 날짜로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회적기업 5곳중 4곳 적자"

주영순 의원 분석



사회적 기업 5곳 중 4곳은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25일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2년 기간) 사회적 기업 경영공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영공시에 참여한 81개 기업 중 흑자를 낸 곳은 18개(22.2%) 기업에 불과했다. 77%를 넘는 63개 기업은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 기업의 영업이익은 평균 1억1834만원, 적자 기업은 마이너스 1억3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전북의 한 일자리 제공 유형의 사회적 기업으로 2012년 한해 4억1000여만원의 흑자를 냈다. 반면 부산에서 방과후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인 사회적기업은 같은 해 5억3900여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평균 129만원으로 집계돼 2012년 보건복지부 기준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49만 5000여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으로"

김광진, 촉구 결의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순천만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유산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필요로 하는 생태와 문화의 공간이다"며 "따라서 그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6개월 동안 44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대중공을 거두면서 우리의 우수한 정원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다"면서 "그러나 순천만을 시작으로 태동한 우리나라의 정원문화와 산업은 관련 제도의 부재로 자칫 지금까지 이어온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미래산업의 기반인 정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병완 "세계김치연구소 정규직 3년간 15명 증원"

"매년 5명씩,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최근 광주 유일의 과학기술 출연연구소인 세계김치연구소에 내년도 정규직원 5명을 증원토록 하는 등 3년간 15명의 신규 직원을 확보, 지역 우수인재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다는 계획을 받고 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김치연구소는 광주지역 유일의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로 지난 2012년 연말부터 업무를 시작해 지역의 대표적 출연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설립 초기 단계여서 관련 예산과 신규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 의원이 공공기관 정원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년 5명씩 신규 증원을 이끌어내 김치연구소가 광주로 청사를 이전한 2012년 이후 15명의 신규직원 확보라는 성과를 이



뤼 낸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이 확대될 경우 추가로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김치연구소가 지난 2년간 정원 추가로 인해 확대 채용한 계약직 연구원은 20명에 달해 장 의원이 확보한 정원 15명으로 인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4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삼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개호 "과학기술 연구 위탁도 수도권 집중"

서울, 3185억 중 34%...광주 2% 그쳐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위탁 연구 사업이 서울 등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25일 국가과학기술 연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5개 연구원의 최근 3년간 위탁연구 현황을 분석 결과, 서울 소재 연구기관에서 전체 연구용역 사업비 3185억원의 34.4%인 1095억원을 수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 출연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이 18.3%(582억원), 경기도 10.8%(344억원)를 수탁하는 등 수도권과 대전지역이 전체 위탁연구 사업비의 63.5%를 가져갔다. 해외 소재 연구기관의 수탁연구 사업비중도 10.5%에 달했다.

하지만, 광주는 2.0%(62억원), 전남북은 2.8%(90



억원), 부산 4.3%(136억원), 대구 1.5%(48억원), 인천 1.6%(50억원) 울산 2.2%(71억원)에 불과했다.

또 충남북 4.8%(152억원), 경남북 5.3%(170억원), 강원 1.2%(37억원), 제주 0.4%(13억원) 등으로 해외 연구기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심지어 지방은 해외연구기관보다 적은 수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지방 연구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인재유출이 심화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11월 (예정) 중도금 무이자 공금연적 (㎡) 78/75

선착순 마감임박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 1 실업주금 2천만원(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3 용봉C 양방향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까지 상승 요인)
-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2,000~4,000만원대)
- 5 일곡정수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062) 385-3080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01 부동산 담보대출 최저 3.5%~ 아파트, 주택, 상업, 공장, 내차, 차량, 전·월, 모빌 대출한도: 최고 20% (자산비율) 상환방법: 원금/이자 / 원금/이자 상환기간: 원금/이자 (이자/원금) 가능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호본 각 1통 인정도, 신용평가	02 햇살론대출 원금/이자 최고 2천만원 / 원금/이자 최고 5천만원 대출한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원금/이자 및 원금/이자 대출금리: 원금/이자 최고 2천만원 상환방법: 원금/이자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연 8.01% (비연환대출) 보통/특: 대출금리 0.95% (비연환대출) 0.90% (연환)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대출금리: 최저 4.0%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상환방법: 원금/이자 (이자/원금) 가능 구비서류: 전세보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호본 각 1통 인정도, 신용평가	04 저당담보, 직영인 전용주택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대출한도: 저당담보 및 직영인 전용주택 대출금리: 최고 1%~ 대출금리: 최저 5.0%~ 상환기간: 원금/이자 특약: 대출금리 추가 인하
---	--	--	---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18개월 2.9%	3년 2.9%
최대 2.5%	단, 하루를 맡기면 월천예금 (금액에 따라 차등 혜택)	1년 3.1%
		2년 3.2%
		3년 3.3%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